

## 불에 타는 無公害 비닐 生産 用途多様 제로化學서 市販

本社와 工場을 釜山에둔 제로化學(株)은 그동안 원료난으로 종전 비닐봉지대치품인 무공해FT봉지를 전량 일본에 수출해왔는데 이번 원료의 자체생산에 성공하여 9월부터 국내 판매를 개시했다. 동사에 의하면 FT(CaCO<sub>3</sub>-HD/PE) Bag은 ①완전연소가능 ②연소시 약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할뿐, 대기를 오염시키는 염소, 아황산가스,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않는다. ③연소 칼로리가 g 당 6,000cal에 불과(종이와 同一)하여 소각용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④자연상태에서 자외선작용으로 6개월내지 8개월에 완전분해되며 땅속에선 지열이나 박테리아·수분등에 의해 12~14개월내에 완전히 분해된다고. 따라서 동사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모든 자연공원탐방객의 쓰레기봉지와 농가의 모종이식봉지, 축산사료 포대, 쇼펍백등에 본제품의 대체를 바라고 있다. 가격은 비닐과 비슷하며 강도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 ◇ “필리핀” 삼림도벌로 表土씻겨나가 식량위기 가중

최근 필리핀 정부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등 사회·경제적 변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식량생산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경제개혁의 실제적 제1목표를 서민생활의 수준의 향상에 두고 식량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불행히도 수십년동안 나무를 함부로 베어 일본등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기름진 표토가 씻겨버려 곡물재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40년전에는 전국의 75%가량이 열대의 우거진나무로 뒤덮였으나 현재는 25%가량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세가지 국가적과제로 빈곤추방, 외채감축, 삼림녹화를 내걸고 최근 벌채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조밀한 인구분포를 가진데다 인구증가율이 3.4%나 되는 나라에서 땅까

지 매탈라져 필리핀의 국가적 과제해결에는 장구한 세월이 걸릴것 같다고. (과학동아 88.9)

## ◇ 탄산가스로 생물멸종

人間의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세계기후의 극적인 급변을 초래, 지구의 역사초기에 있었던 것과 같은 동식물의 대량멸종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같은 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탄산가스 등으로 인한 온실효과로 지구 온도가 30~40년 내에 평균1.5~4.5도 상승 인류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것과 때를 같이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美텍사스주 소재 응용연구회사의 “토마스 크롤리”씨와 A&M대학의 “제럴드 노스”씨등 두 연구원은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표면의 복사에너지가 단0.0002%만 증가해도 대량멸종을 가져올 정도의 기후의 돌변을 초래할 만큼 지구온도를 상승시킬수 있다고 계산해 냈다. 이들 두 연구원은 대기중의 탄산가스 함유량이 완만한 변화를 보여도 기후가 급격히 변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구의 기후가 주어진 상황에서 두가지 이상의 안정된 상태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그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예를들면 대기중의 탄산가스농도가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에는 지구가 극지의 빙원이 없어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억년동안 바다의 무척추동물은 대량멸종케한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공룡의 멸종시기에는 기후 급변의 증거가 없지만 고생대의 오르도비스기말기(4억4천만년)와 데본기말(3억6천5백만년 전의) 두 경우는 정상적인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갑자기 빙하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두 연구원의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다. (충청일보 88.6.27)

## ◇ 八公山에 光明禪院개원

스님들의 전문수도원인 禪院이 八公山에 전국4번

째 규모로 세워졌다.

慶北 軍威군 佺溪면 八公山 제2석굴암(주지法燈)은 총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사찰 성역화복원사업(1차)을 지난 85년부터 4년간에 걸쳐 이뤄졌는데 건평 150평의 光明禪院준공이 사업의 핵심. 「8만9암자」로 金剛山과 이름을 같이한 八公山은 桐華寺의 선원폐쇄로 승려배출기관이 없어지고 말았었다.

이번 光明禪院 개원은 단순한 단위사찰의 불사가 아니라 지역불교계의 맥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敎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는 곳으로 수행스님 2백명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로 규모로는 聞慶봉암사, 慶州불국사, 全南송광사 다음으로 큰것이다. (매일신문 5.21)

### ◇日本 大阪국제 꽃과 녹색의 박람회

大阪市 鶴見綠地공원에서 1990년4月1일부터 9月30일까지 「국제 꽃과 녹색의 박람회」가 열릴예정이다. 일본이 주관한 주요 국제박람회중 네번째가 될 정원, 식물 박람회는 정원, 식물, 인간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아울러 21세기의 쾌적하고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될 것이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①인간생활에의 기여 ②도회지내에 정원과 식물을 널리 보급하는 문제. ③새로운 형태의 공공광장과 공원의 연구개발. ④산업과 인간생활, 문명과 자연사이의 조화. ⑤지구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등이다. 박람회장은 크게 세구역으로 나누어 지는데 산간구역, 야외구역, 도심구역등이다. 각 구역마다 그 구역의 특성에 맞춰 각종전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거리나 광장같은 곳에는 화초와 식물과 물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것이다. 박람회에는 전통수공예품 전시장, 대형연못, 레스토랑과 상점, 휴식공간 및 국제관, 외국관, 일본민간부문을 위한 전시관 등 각종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박람회는 모두 5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①자연과 과학=푸른지구상에서의 생활 ②문화와 전통=“일본 문화에서의 정원과 식물” ③산업과 기술=“정원과 식물을 가꾸고 활용하는법” ④도시와 환

경=“정원과 식물과 도시개발” ⑤“생활과 미래=“생활의 번영과 문화의 창달”등이다.

이들 5개 부분별 전시장은 광장의곽에 방사형으로 차례로 배치되어 있어 산책하면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듯 관람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정원은 모두 11곳에 설치되어 정원과 식물이 인간에 미치는 다양한 관계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환경개발 계획의 시험대 구실도 하게 된다. 이들 정원중에는 일본식 정원과 수공인조정원, 과일 나무 동네도 선보이게 될 것이다.

### ◇美 「YELLOWSTONE」등 국립공원 최악의 사태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 잦아—

계속되는 가뭄과 더위는 미국서부지역의 국립공원들을 마구 파괴하고 있다. 산불이 자주 일어나 “와이오밍”주의 Yellowstone 국립공원은 4만ha나 폐허가 됐는데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사태라는것. 또한 같은 주에 있는 “Grand Teton” 국립공원과 앨래스카의 여러산림지대도 산불의 피해를 크게 보고있다고 한편 산불 경고 때문에 국립공원에 피서왔던 사람들이 일시에 도로를 메우는 바람에 큰혼잡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화씨 80도의 더위속에서 일하던 소방관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예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과학동아 88. 9.)

### ◇智異山 피아골 자연생태계 본격조사.

지리산 피아골 일대의 자연생태계가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청은 피아골 일대의 자연생태계를 정밀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식물반, 동물반, 미생물반, 무기환경반등 4개반으로 편성 식물의 분포와 플랑크톤, 포유류, 조류, 곤충, 담수어류, 토양미생물, 지상, 수질, 지형, 지질등 자연생태계를 조사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피아골 일대를 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光州 일보 88.8.4)

◇慶州서 羅代金石文 발견

높이 66.8cm 두께 16.5cm 장방형 花崗石材.

지난 8월 26日 慶州市 普門洞 明活山城내에서 羅代 金石碑文이 발견됐다.

李蘭暎 국립경주박물관장에 따르면 이비는 높이 66.8cm 최대폭 32cm 최대두께 16.5cm인 장방형의 화강 석재로 비석의 전면에 총 148字를 새겼는데 마모가 없는 완전한 모습의 明活山城 축성을 기록한 것으로 금석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체가 六朝風의 楷書體이며 字徑은 1.5~2.5cm의 비교적 작은 글씨이고 축성시 1개집단이 담당한 곳에다 참가자의 이름, 담당거리등을 기록한 南山新城碑(591년)와 성격이 같으나 明活山城에서는 축성비가 발견

되기는 처음이다.

비문 내용을 요약하면 辛未年11월에 성을 쌓았고 우두머리아래 3개집단이 각각 4步 3尺 1寸씩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합한길이는 14步 3尺 6寸이고 11月15日 시작 12月20日에 완료하였고 비문을 쓴 사람은 △△△阿尺이라고 돼있다.李관장은 「明活山城은 신라 王京 주변의 羅城기능을 가진 石城가운데서 가장먼저 축조된(實聖王 4년 AD405년 이전)곳으로 현재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수하고 石城에 사용된 돌을 마을에서 반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環境정책 기본法案마련

國家・企業의 保全 의무도 강화

정부는 환경을 이용하는 국가의 모든 시책이 환경보전을 존중토록 하고 국가의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국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과 국가 및 기업의 환경보전상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 갔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은 날로 복잡다기화되어가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시책을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환경관계법률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환경보전법을 1개기본법과 5개개별법으로분리, 강화한다는 기본방침아래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안과 2개개별법안(환경피해심사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화할 계획이며 대기보전법 소음진동법 수질오염방지법등 3개개별법은 89년제정을 목표로 현재 법안을 작성중에 있다.

환경청이 지난해 작성한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관계부처와 재협의에 들어간 환경정책기본법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확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것을 규정하고 국가 및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안은 이밖에 ▲ 환경시책추진상황의 연례적인 국회보고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

書作行四△三匠伸亲  
 寫△其步波尺人△未  
 人十作三日一△△年  
 二石尺徒寸智利十  
 △月立三受△△△一  
 △廿記寸長△波之月  
 △日喙此四并日郡中  
 阿了人記步一并中作  
 尺 苙△三伐二上城  
 △十古尺徒人人也  
 卅一他一作抽鳥上  
 五月△寸受并大人  
 日十中 長下岨邏  
 五向合四干△頭  
 日南△步支智本  
 也 西寸三徒支波  
 步尺作下部  
 長一寸受干支  
 十寸長支  
 △四  
 △步

字徑 1.5~2.5cm로 六朝風의 楷書體인 碑文.

립 및 운용 ▲ 영향권별 환경관리위원회 설치 ▲ 자연 생태계 보전구역 지정 및 동구역내의 행위제한 ▲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참여 및 사후관리 강화 ▲ 환경 요원의 교육의무화 등 신설규정을 두고 있다. (聯合)

◇ 自由中國 행정원 農業委員會  
稀貴植物 보호 活動

行政院 農業위원회는 성공적인 稀貴動物 보존 활동에 이어 대만의 稀貴植物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葛錦昭 副主任委員이 말했다. 그는 제1회 “自然景觀研究세미나”에서 대만의 人口 증가와 土地이용 수요의 증가로 많은 식물들의 천연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러 식물들만 관광용이나 의료용의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어 일부 종류들이 점차 멸종되어 가는 등 자연환경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農業위원회는 특히 어류나 조류 가운데 희귀 동물들을 보존하는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현재 130種의 희귀 식물들을 조사해 놓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自由中國週報 88.7.18)

◇ 제25차 IFLA 총회 - 美 보스턴서 열려 -

吳輝泳 · 安奉遠 교수 등 20余名 參席

제25차 국제조경가연합회(IFLA) 세계총회가 7월13일부터 7월19일까지 美 조경의 발상지라 할수 있는 BOSTON에서 열렸다.

이번총회는 “국제적전망-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개회식에서 국제조경가연합회를 창설한 Sir Geoffrey A. Jellicoe(IFLA 명예회장)은 “보이지 않는 형태와 향후 40년”이란 제목으로 조경분야의 앞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총회는 美國, 영국, 日本, 서독, 스위스, 이태리, 한국, 소련, 헝가리 등 30여개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吳輝泳 교수(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장·본회 부회장), 安奉遠 교수(경희대 조경학과·본회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활성화 도구로서의 공원(매사추세츠 주립 유적 공원).
- 지방문화 조성(Machu Picchu 보호구역의 방문자 센터).
- 가두어져 있는 문.
- 추상적 경관.
- 設計와 計劃을 통한 사회정책목표.
- 都市의 古木패턴의 새로운 역할.
- 生態造景과 지속적개발.
- 기술이전(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경험).
- Edge를 통한 세상의 이해.
- 어린이들의 놀수 있는 권리(개발도상국에서의 어린이 발전을 위한 조경의 창조와 보전).
- 평화를 위한 장소(국제적 관심).
- 범 문화적 관점(커뮤니티 계획과 시행과정에서 가치지향의 역할).
- 농촌경관에서 야생동물서식처 네트워크의 개선(서독의 예).
-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환경의 개발에서의 이슈.
- 열대 아메리카에서의 조경의 접근 방법.
- 네덜란드 설계의 현재.
- 서독의 조경계획.
- 역조건에서의 植栽(건조한 지역에서의 식생재료를 이용한 생물공학의 예).
- 中東에서의 조경계획(Asir 국립공원의 예).
- 인도의 관광.
- 공공장소에서의 조경예술.
- 美國과 英國의 역사경관에서의 식재관리.
- 개발도상국에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도전.
- 조경교육(국제적 유사점과 차이점).
- 문화경관에서의 변화와 지속(조경가의 역할).
- 컴퓨터를 활용한 단지설계(조경가용 소프트웨어의 수준)
- 설계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컴퓨터 비디오 영상 활용.
- 개발도상국에서의 조경.
- 재정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세계은행의 환경에 대한 입장).

### ◇先進國「폐기물테러리즘」聲討

최근 南美 베네주엘라에서 개최된 UN의 환경보존 프로그램관련회의에서 서구선진공업국가들의 「폐기물테러리즘」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전례없이 드높았다. 지난 7월 25일 막을 내린 이회의에서는 제 3 세계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위협하는 폐기물 수송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폐기물의 국제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국제법을 제정기로 결정했다. 유럽국가들은 근자에 중남미와 서부아프리카 국가에 독성 폐기물을 빈번하게 운반수송, 내다버림으로써 제 3 세계에 대한 「독성폐기물공해테러행위」라는 비판을 자아냈다. 때문에 이같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UN과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유럽회의가 요즘 잇따라 소집돼 「세계각국은 국경선을 넘어가는 모든 위험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필요성」을 새삼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아프리카의 기니에 노르웨이 수송선이 소각로의 폐기물인 1만 5천톤의 잿덩이를 美國필라델피아로 부터 신고와 버린데서부터 비롯됐다. 기니정부는 이같은 폐기물의 출하가 자국정부의 공식적인 허가서의 발급아래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고 3명의 무역부관리들을 전격구속시켰다. 이사건은 때마침 열리고 있던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OAU회의에서 「식민주의자의 쓰레기」와 「폐기물 테러리즘」을 비판하면서 해결책을 촉구하던 때여서 그 파급효과는 훨씬 충격적이었다. OAU는 결국 「우리는 아프리카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 아프리카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공할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조선일보. 88. 8. 2).

### ◇月出山에 「食蟲식물」살고 있다.

- 끈끈이주걱, 땅귀개, 이삭땅귀개 등 -

한국에서는 거의 멸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食蟲식물 3 종이 月出山일대 자생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버섯류 3 종류도 月出山에서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자연보존협회가 지난 7월 국립공원月出山일대 동식물분포동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

학술 조사결과 밝혀졌다(단장 : 金熏洙서울대교수). 한편 그동안 귀화식물로 알려진 산달나무가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조사반은 모두 6 백종을 조사했는데 이중 9 종이 귀화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菌類63종을 조사했는데 이중 미기록 종으로 추정되는 외래버섯류, 그물버섯류, 동충하초류등 3 종을 확인했다. 月出山일대의 버섯류는 광대버섯등 3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용버섯으로 식량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단은 이번조사를 토대로 月出山국립공원일대 삼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구명하고 자연자원적 가치성을 평가 국립공원의 바람직한 이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光州日報 88. 7. 30)

### ◇野生동식물77種 法的보호

구렁이 풍란등 포획·채취땀 벌금

약용이나 보신용으로 남획되고 있는 뱀 개구리 두꺼비등과 관상용으로 마구 채취되고 있는 야생난초류등 야생동식물이 마침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청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 채취등으로 갈수록 희귀해지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곤충류 33종, 양서 파충류 13종, 식물 31종 등 총 77종을 환경보전법상의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 금년내고시키기로 했다고 9월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야생동식물은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해 천연기념물(식물 69종 포유류 7종 조류 28종 여류 4종 곤충류 1종 등)로 지정되거나 鳥獸保護區(조류및 포유류 서식지32개소)에 의해 일부가 서식지 중심으로 보호되어 왔을 뿐이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곤충은 장수하늘소이다.

환경보전법에 의해 生物種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목적으로 특정 야생동식물을 보호키로 한것은 처음 있는 일.

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8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생태계조사결과 및 참고문헌을 토대로 특정야생동식물 지정대상 77종을 선정, 현재 관련학자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그과정에서 일부 종이 제외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90년까지 全国生態系조사 계속

환경청은 지정대상종이 확정되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내에 고시할 방침이며 오는 90년까지 전국 생태계조사를 계속하면서 대상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 고시되는 동식물은 환경청장의 허가없이 채취 포획 이식 수출 가공 보관하지

保護 대상種

구 분	곤 충 류 (33종)	양서파충류 (13종)	식 물 (31종)
멸종위기	붉은점모시나비 큰풍뎅이 장수풍뎅이	남생이 구렁이 대륙유혈목이	끈끈이주걱 노랑돌쩌귀 솜다리(에델바이스) 순채
감소추세	사슴풍뎅이 톱사슴벌레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꼬리치레 도롱뇽 두꺼비 맹 꽂이 참개구리 능구렁이 도 마뱀 실뱀 까치살무사	충충등글레 천마 풍란
희 귀 종	독수리팔랑나비 대왕팔랑나비 남방제비나 비 라파엘갈빛나비 상제나비 물결부전나비 먹나비 쌍꼬리부전나비 바둑돌부전나비 깊은산부전나비 먹그림나비 유리창나비 산은줄표범나비 어리세줄나비 번개오색나 비 밤오색나비 높은산세줄나비 참줄나비 왕알락그늘나비 산굴뚝나비 제주왕나비 알 락수염산꽃하늘소 반날개하늘소 범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우단하늘소		솔잎란 큰연영초 솔나리 개 상사화 흰각시붓꽃 나도풍 란 사철란 새우난초 약난초 금세우난초 큰복주머니꽃 백운란 만주바람꽃 한계령 초 고추냉이 구름송이풀 끈끈이귀이개
특 산 종	신부나비(희귀종)	금개구리(희귀종) 무당개구리(희귀종)	금강초롱 갯취 금강애기나리 노랑무늬붓꽃 지이바꽃 모 데미풀정선황기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청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학술연구용 공원 동식물원등의 관람용 인체 가축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증식용 공익사업수행상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등이다.

第10回 自然保護세미나開催

鷄龍山서 自然保護中央協·忠南道主催

자연보호 중앙협의회(회장 李敏載)와 忠南道(沈大平知事)주최, 내무부 후원 「제10회 자연보호 세미나」가 6.15~17. 까지 계룡산의 충남도 자연학습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의 자연보호관계학자, 자연보호실무위원, 유관단체 임원, 각 시·도 관계 공무원, 각 교육위 장학관, 자연보호형예감시관,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지도교사등 170여명이 참가한 이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李敏載박사는 「自然의 復歸와 환경의 保存」을 역설했다.

主題 및 發表·討論者는 다음과 같다.

▲1主題：自然보호를 위한 국민정신순화운동의 定着化=發表·金俊錫 서울대교수·討論座長=盧隆

熙 서울大환경大學院 교수·토론=沈玼漢 문교부정신 교육장학관·鄭在鏞 文公部 文化財관리국장·金秀男 한국일보·少年한국일보이사·金寬洙大田대교수. ▲2主題：自然과괴와 資源復元=發表·李昌福 서울大 명예교수·座長·嚴圭白 養正高校長·討論=李一球 건국대 대우교수·鄭玩鎬 한국교원대교수·崔斗文 公州師範대교수·咸奎冕 慶南대교수 ▲3主題：西海岸 개발과 生態系保存=發表·高聖哲 韓南대교수·座長·鄭英昊 서울대교수·討論=尹一炳 고려대교수·任良宰 中央대교수·高哲煥 서울대교수·李泰源 忠南대교수 ▲4主題：물의 根源과 保護=發表 崔榮博 고려대교수·座長·洪恩澳 성균관대교수·討論=鄭勇 연세대교수·魏仁善 전남대교수·崔信錫 충남대교수·金基台 영남대교수·李仁圭 서울대교수. 100 분간의 종합토론과 90분간의 市·道연구과제 발표회도 진지하였다.